

놀라운 예언들과 임마누엘 -이사야-

이사야 19:1-4, 마태복음 1:21-23

정운돈 목사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성공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사랑해 주신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경건을 잃지 않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참 승리가 있음을 체함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보고 놀라셨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로마서 16장 절대 제자들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단 한 시간 뒤의 일도 알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십, 수백, 수천 년 후, 영원하신 시간표를 미리 다 아시고 이루어가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예언이라는 섭리를 통해서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시는 분이다. 이 대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씨를 통해 남은 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제목에 ‘예언’이라는 말이 있다. 성경은 약 27%가 예언으로 되어 있다. 구약의 6,641절이 예언이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 아닌가. 신약에는 1,711절이 또한 예언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사야서는 50% 이상이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 세상 어느 책도 미래에 있을 일들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10년 후, 100년 후, 1천 년 후, 영원한 미래까지 예언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지금까지 있을 일을 모두 다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한다. 이사야서는 어느 부분만 떼어서 읽다 보면 구약인지 신약인지 모를 정도로 복음적인 내용이 가득 들어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의 내용이니가 복음이 명백하고, 구약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사야서는 유독 너무도 선명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이나 되는 긴 성경인데, 나는 목회자니까 전체를 보면서 말씀의 흐름을 캐치할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은 부분적으로 알게 되기가 쉽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를 알아야 한다. 성경을 읽고 깨닫는 방법이 있는데, 이사야서를 이해하려면 예언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된다. 그 그리스도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해하려면 어떤 예언이 있는지를 보고 읽으면 된다. 그렇다면 이사야서는 어떤 종류의 예언들이 나오는가?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될 것에 대한 예언, 천년왕국과 새 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까지 담겨 있다.

서론 : 이사야서 이해를 위한 배경

(1) 이사야서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사야는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의 사촌 정도 되는 귀족이었다. 그런데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했고, 남쪽에 있는 성도 앗수르가 거의 정복했다. 남은 것이 예루살렘 뿐이었다. 이때 앗수르 왕 산헤립이 자기 부하장군을 보낸다. “너희는 이미 망했다. 전 세계 어느 신이 나를 막고 우리나라를 이겼는지 보라. 어떤 신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 항복하라.” 이 말을 유다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계속 떠드는 것이다. 이때 큰 위기가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 없었다. 언약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남은 자 한 사람을 찾으셨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 일어난 것이 이사야였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무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을 때 일어나서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 세계를 살린 인물이 바로 이사야였다. 여러분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언약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2)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증거한 목적이 몇 가지 있다. 쉽게 말해 이사야서의 내용이다.

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는 것이다. 북 이스라엘의 왕은 다 악했으며, 남 유다의 왕도 몇몇을 빼고는 거의 악했다. 백성들은 계속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을 그대로 둘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것을 치겠다고 하시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가득 들어있다.

② 그 악한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또한 다 징벌하실 것이라는 내용이다.

③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악한 것을 고치시고, 남은 자로 만드셔서 축복하실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다. 그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힘, 능력, 도덕성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치유하실 때 가능하다.

④ 그러면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임마누엘, 메시야가 오시면 이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영원히 해결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천명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1.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언들

(1)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이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많은 예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예언만 말씀드리겠다. 그 전에, 왜 하나님은 예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셨는가? 신약에 보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 많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예언하지 않고 행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 신약의 중요한 사건의 내용들은 다 구약에 나온 이야기들이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나중에 성취하신다. 모든 일이 그렇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은 것이다.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산다. 미래에 있을 일들을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미래의 일을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영세 전과 영세 후를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 없이 짓지 않는다.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실 때 설계도, 그림이 없을 수가 없다.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예언, 계시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될 부분이 무엇인가? 미래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염려할 필요가 있는가? 없다. 왜인가? 다 하나님의 뜻,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미래를 맡기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신다. 우리는 우리 인생 설계자요 감독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 그러면 천명이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의 미래를 주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한다. 예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페르시아, 앗수르, 바벨론, 로마,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악한 왕, 선한 왕, 전쟁하는 왕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좋고 빼앗으셔도 좋고, 나는 실패해도 좋고 합격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란다. 정말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기도하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권을 인정할 때,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나는 나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다 안다.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너희가 나를 정확히 이해하면 나는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나는 내 모든 영광을 나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요 계획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살다가 징계를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다.

(2) 이사야서 속의 예언과 그 성취의 증거들

많은 예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자. 하나님은 어떻게 예언하셨고, 어떻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①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다.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다. 지금의 이라크 땅이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는가? 사막 아닌가? 이집트도 그렇다. 그런데 이 지역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집트는 비옥한 곳이였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사13:20을 보라. “그 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다니엘의 시대 이후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 그 곳에 그들의 양 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21절에,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었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뿔 것이요” 수백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속에 언급되었던 임금과 그 나라를 신화로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이제야 증명되어 가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는 4천 년 전 도시인데, 이것이 최근에야 발굴되었다. 성경이 진리임이 이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

뿐 아니라 과거의 역사도 다 기억하고 있다. 인류가 모르는 과거의 역사를 성경은 말한다. 피라미드가 거의 4천 년 전의 것이다. 이때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다. 이때가 애굽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그 지역이 모두 악한 왕들 때문에 없어지고 지금은 사막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② 사14:25에 보면 앗수르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다. 앗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다.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다. 우리는 성경을 봤으니까 니느웨가 당연히 있는 도시라고 생각했지만, 이 니느웨가 실제 지표면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1800년대였다. 앗수르 도시는 이사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짓밟혀 흙 속에 파묻혀 버려진 것이다.

③ 모압과 다메섹, 애굽에 대한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을 보라. 사19:4에,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 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학자들은 다 일치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수천 년 지속되었던 이집트의 왕조가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 이집트의 왕이 더 이상 이집트인이 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알렉산더는 이집트 왕조는 멸망시켰는데, 이스라엘은 멸망시키지 않고 보호해 주었다. 알렉산더가 일어날 것이라는 다니엘의 예언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유대 종교를 보호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완전히 무너졌다. 역사, 종교가 다 헬라와 통합되어 버렸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이집트의 최대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까지 하게 된다. 이것이 70인 역 성경이다. ‘애굽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딸로 높이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④ 또 한 가지 놀라운 예언이 있다. 사45장 이후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다. 많은 성경학자, 역사학자들이 의문을 가졌다. 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했는가? 왜 예루살렘 성전을 쌓게 하고 성벽을 쌓도록 도와주었는가? 가장 큰 원인이 이사가의 예언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사가서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7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그 이름까지 고레스라고 정확하게 밝혀 놓았다. 사45:13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았는가?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 왕을 통해 회복되어 돌아올 것도 예언되었다.

(3)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목표

하나님은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겠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점쟁이처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700년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모든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미리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이것이 예언의 목표다.

2. 이사가서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들

이사가서에 나타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이사가서에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다.

(1) 사6:13에, “땀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거룩한 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말한다.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와 씨라고 했다.

(2) 더 구체적으로 사7:14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된 것이다.

(3) 사9:6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왔는데, 품에 안긴 이 아기가 전능하신 여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다.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구절을 보여주었다. “한글 모르세요? (웃음) 여기 이 구절이 있잖아요? 한 아기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wonderful, counselor라고 했다. 개인과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들으시고 진정한 답을 주시는 참된 상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항상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4) 사11:1-2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썩이 났다고 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

(5) 사53:1-6의 내용은 너무 유명한 내용이다. 마치 예수님을 보고 쓴 것처럼 그

광경을 그리고 있다. 이 구체적인 묘사를 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다.

결론 :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남은 자가 받을 축복

말씀을 마무리하겠다. 이사는 열두 가지의 제양과 어려움에 빠진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였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고백한 제자였다. 이 어려운 시대에, 결국 남은 자 한 사람인 이사가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언약이 성취되는 대열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와 그 대열 속에 있었던 남은 유대 백성들은 천명무패, 천명필승, 천명완성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는가?

(1) 우리들이 비록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눈 같이 희다고 인정받는 사죄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사가서는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을 꾸짖고 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1:4에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려갔도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다 이야기하신다. 그런데 갑자기 전환점이 나온다. 그것이 사1:18이다. 실컷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안에 있고, 이 언약의 대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다.

(2) 우리는 깨끗하지 않다. 더럽고 실수 많고 악한 자다. 그러나 우리는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남은 자들이 받은 축복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3) 남은 자의 축복이 자세히 나오는 부분이 사28:5이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우리 랍닌트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 주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그 날, 그 때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것이다.

(4) 네 번째, 남은 자 언약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 언약이 후대에서 후대에게로 전달되는 축복이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흐름에서 주어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앗수르 때문에 멸종의 위기를 만났는데,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알고 말씀을 묵상해 보라. 사59:21을 함께 보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5)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의 축복,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축복, 천년왕국의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으면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부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영세 전부터 약속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사를 어려운 시대에 불러 주시고, 그 시대를 살리고 역사를 살리며 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려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나가는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천명을 성취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